

개로왕[蓋鹵王]

한성의 함락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미상 ~ 475년(개로왕 21)



풍납토성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개로왕(蓋鹵王)은 백제의 제21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455년~475년이다. 재위 기간 동안 지배체제의 안정과 고구려의 남하정책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보낸 첩자 도림(道琳)의 꾀에 빠져 실정을 거듭했고, 북위에 대한 외교정책이 실패하면서 이를 틈탄 고구려의 공격을 받았다. 결국 왕도(王都) 한성은 함락되고 개로왕도 목숨을 잃었다. 한성 함락과 함께 백제의 한성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2 개로왕의 즉위와 왕권강화 정책

개로왕은 근개루(近蓋婁) 혹은 근개로왕(近蓋鹵王)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경사(慶司)인데, 『위서(魏書)』와 『송서(宋書)』에는 여경(餘慶)으로 표현되어 있고, 『일본서기』에는 가수리군(加須利君)이라 기록되어 있다. 비유왕(毗有王)의 첫째 아들로, 비유왕이 재위 29년 만에 죽자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관련사료](#)

개로왕의 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삼국사기』에 비유왕 사망기사가 흑룡의 출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점, [관련사료](#) 같은 책에 개로왕 초기 14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임시로 매장되어 있던 부왕의 뼈를 개로왕 21년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장사지냈다는 점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래서 왕위계승전에서 승리함으로써 개로왕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즉위 이후에는 지배체제의 재편을 통한 본격적인 왕권의 강화에 나섰다 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개로왕은 지배체제를 왕족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했다. 458년(개로왕 4) 개로왕은 송에 표문을 올려 행관군장군(行冠軍將軍) 우현왕(右賢王) 여기(餘紀) 등 11명에게 좌현왕(左賢王), 우현왕, 장군 등의 작위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관련사료](#) 11명 중 8명은 여기와 같이 여씨 즉, 부여씨의 성을 가진 왕족이었고, 그 외에 목금(沐衿), 미귀(糜貴), 우서(于西) 등 새로운 귀족들이었다. 개로왕은 왕비를 배출하던 유력 귀족인 해씨와 진씨를 배제함으로써 집권 초부터 새로운 권력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서 백제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좌현왕과 우현왕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관작은 흉노나 돌궐과 같은 북방민족이 왕의 후계자로서 군사권을 장악한 사